

여호수아(14) 말의 힘줄을 끊는 여호수아

■ 본문

수 11:1-9

■ 시작 찬송가

212장(통 347장)

■ 헌금 찬송가

191장(통 427장)

▶ 북부 연합군

하솔 왕 야빈이 남부 연합군을 이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 등 여러 족속에 사람을 보내 연합하였습니다. 모인 군대 수가 모래와 같이 많고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여호수아 11:1-3)

사명을 이어가는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왕 아도니세덱이 이끄는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북부 연합군을 마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이어갔습니다.

인생의 길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여러 수식어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길과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이 어려운 길임에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1) 사명을 바라보는 인생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위해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남부 연합군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솔왕의 주도로 형성된 북부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연이은 전쟁으로 지쳐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북부 연합군과 맞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갔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수 11:1-3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약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 사람을 보내매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자세는 이해되지 않은 길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은혜로 걸어가게 됩니다.

시 1:1-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 지름길 없는 인생길

남부 연합군은 쉬운 상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앞에는 남부 연합군보다 더 강력한 북부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북부 연합군을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 끊임없이 강력한 적들과의 전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고 쉬운 길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수 11:4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름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시간들이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며 강해집니다.

빌 3:17-19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 신앙의 성장

예수님과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으셨습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름길을 택해서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통해 훈련시키고 더욱 아름답게 성장시켜주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2018.11.25. 주일찬양예배 중)

(3) 겸손의 순종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한 이후 북부 연합군이 가지고 있던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을 점령해 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눈에 북부 연합군의 말과 병거가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 11:6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수 7:21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그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지금까지의 전쟁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임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북부 연합군의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시날산 외투와 같이 좋아 보이는 북부 연합군의 말과 병거를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북부 연합군의 말과 병거와 같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의 힘줄을 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 11:9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눅 22: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순종의 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사명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승리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서 쉬운 길이나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7. 빌리그래합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위해서